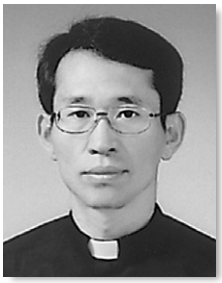
대구주보

연중 제19주일

2011. 8. 7.(가해) | 제1740호 |

주일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김태형 베드로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하느님의 현존 약속과 현실의 확실성이 주는 혼란 속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스승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불확실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상징인 밤바다, 거센 파도와 바람들… 예수님은 배안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배는 역풍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스승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들려온 그 음성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현존에 확신을 주었고 곧장 어둠속의 밤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스승 예수의 현존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에 발생하는 모든 어둠의 현실을 대변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센 바람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의 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현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약속을 충실히 지킴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인간의 신뢰, 그것이 만나서 베드로를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성을 뛰어 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약속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 약속에 충실한 하느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는 자주 인간의 배신으로, 인간들의 약속 어김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약속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나의 계산을 더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위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교우여러분!

우리 교구 설정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 교구를 이끌었던 초대교구장 드망즈 주교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여건 속에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고 살았던 분, 하느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셨던 분…. 주교좌계산성당, 신학교, 교구청, 성모당을 둘러보면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당신 현존의 약속에 충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믿고 약속에 충실히 응답해야 하는지를 느끼고 깨우치게 해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확실함에 더욱 신뢰를 두는 모습과 약속된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신뢰를 두는 모습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약속에 대한 신뢰는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생명의 말씀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 14,28 참조)

제1독서 : 1열왕 19,9ㄱ.11-13ㄱ 제2독서 : 로마 9,1-5 복음 : 마태 14,22-33.

생명사랑나눔운동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주님께 봉사하고 감사드려야"

장성녕 안드레아

교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실천운동으로 시작된 '생명사랑나눔운동'이 본격적인 후원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구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의 첫 행사로 교구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개최된 '생명사랑나눔대축제'에서는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1억 5천여 만 원의 수익을 남겨 '몽골 초등학교 건립 지원', '카자흐스탄 무료진료소 의료기기 지원' 등 해외선교활동에 골고루 지원될 예정이며, '은총의 1.3운동'을 통해 '한 끼 100원 봉헌하기'로 모아진 2억여 만 원은 주교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리구 내 '방과 후 공부방'에 지원하여 사각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9월호 '빛' 잡지를 통해 자세히 기재)

또한, 해외 원조를 담당하던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는 기존에 국내 후원을 담당하고 있던 '밀알회'와 통합운영됨으로서 국내외 모두를 담당하는 원조기구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은 대리구 사회복지사들과의 협조를 통해 본당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고 봉사자를 활용해 빠른 입력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무료수술지원>에 있어서는 구순 및 구개열수술(언청이 수술) 또는 심장수술 등 한차례 수술로 가능한 아이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개국 7개 지원처 379명의 아동과 891명의 후원자 중 375명의 후원자가 아동과 결연이 되어 있는 <해외아동결연사업>은 밀알회 시스템과 통합하여 후원금 입금 및 후원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사랑의 선물 보따리 사업>으로 각 본당에 비치된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물량은 서구자활과 계약을 통해 수거물량 판매액의 40%를 사랑의 선물 보따리 통장으로 적립하였으며 앞으로도 본당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 청소년 초청 장학사업>은 결연후원사업 대상국 아동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측과의 협조로 어학교육 및 학업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본부장 이정효 예로니모 신부님은 "생명사랑나눔운동은 교구 100주년을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0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진정한 사랑의 실천운동이며, 어려운 이들 안에 계신 주님께 봉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일"이라며 교구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셨습니다. 대구주보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박성규 엘리지오

오 늘 의 미 사

연중 제19주일

입당성가
6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영성의 향기

:: 고약한 인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하니까 상황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격려나 도움 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심지어는 계명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싫은 사람의 경우,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을 배우는 데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의 경우, 하느님께 영영 버림을 받을 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배우는 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도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만큼 고약하지는 않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 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죄인들을 위해 자비를 청하는 기도

감미로우신 주님, 자비로우신 당신의 눈을 당신 백성에게, 특히 당신 신비체인 교회에게 너그러이 돌리소서. 당신 엄위를 그렇게 많이 거스른 저만 용서하시기보다는, 무수한 당신 피조물을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 이름에 더 큰 영광이 돌아가리이다. 당신의 백성이 죽음 속에 앉아 있고 저만 생명을 누린다면 제가 어떻게 위안을 느끼겠습니까? 오, 헤아릴 수 없는 심원한 사랑이여! 측량할 수 없는 당신 사랑에 의지하면서 제 영혼의 온 힘을 다하여 비오니, 비천한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대화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9일(화)은 故이길준(바오로)신부 8주기입니다.

모임 / 행사

가톨릭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일시: 8.10(수) 14:00, 가톨릭교육원

떼제기도회
일시: 8.13(토) 20:00, 삼덕젊은이성당

한국순교자125위 시복시성 기도 선포식
일시: 8.15(월) 11:00, 계산주교좌성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소 / 피정

조이플스테이 (24-29차)
기간: 8.20~21/27~28(토~일)
9.3~4/10~11/17~18/24~25(토~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여성(회비없음, 미사준비)
문의: (010)2649-2045

성체신심세미나
일시: 8.26(금) ~ 28(일), 2박3일
장소: 사수동 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내용: 성체현시 · 조배, 강의, 참회예절,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이홍근, 하성호, 송재준, 서덕교, 정기모
문의: (010)5493-1819, 회비: 15만원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기다예 모임 대피정
일시: 8.12(금)~14(일) 15:00, 2박 3일
장소: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양평)
문의: (010)3402-5232
http://cafe.daum.net/vocatio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8.13(토)17:30~14(일)14:00, 골롬반 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
문의: (010)6818-3737

제주 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일시: 8.17~20(수~토)/9.2~5(금~월), 18~21(일~수),
9.26~29(월~목)/10.1~4(토~화), 9~12(일~수)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교육 / 모집

제19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일시: 8.27(토) 15:00~21:00, 매주 토(6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합실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능
마감: 8.23(화)까지 (선착순:40명)
문의: 641-5678, 신청비: 15만원

새로운 방법으로 읽는 성경 거룩한 독서반 모집
접수기간: 8.1(월)~31(수), 어버이성경학교
개강: 9월 첫째 주 (srjust@hanmail.net)
내용: 루가복음, 매주(낮반:월화수목, 저녁반:월화)
대상: 어버이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남,녀)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새빛학교 국어 · 영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8.18(목)까지
대상: 한글과 영어에 자신 없는 성인 남녀
문의: 새빛학교, 476-3100 (교대역 3번 출구)

시편성가연수(김정선 수녀), 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일시: 8.7(일)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1급(국가자격증 취득반) 개강
교육기간: 9.2(금)~10.24(월), 주 3회 월, 수, 금
접수기간: 8.1(월)~26(금), 문의: 255-7222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POP,
초크아트, 롤페인팅, 포크아트

어르신과 더불어 함께하겠습니다.
대상: 장기요양 1, 2등급 어르신
3등급(시설급여) 어르신
문의: 성가요양원, (054)976-8122(www.sug.or.kr)

직원 채용

한티순교성지 피정의집 여직원 모집(마감: 8.10)
자격: 한글워드와 엑셀에 능숙한 1970년 이후 출생자
구비서류: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세례증명서
문의: (010)5442-6112 / (054)975-5154

안내

우편으로 하는 예비신자 통신교리 안내
대상: 개인사정으로 교리반에 나갈 수 없는 예비신자
우편신청: 신청서 작성 후 보통우표 20장과 함께 발송
사이버신청: www.cdcc.co.kr에 접속 가입 후 신청
주소: 대구시 중구 남산3동 225-1 교구청 통신교육회
문의: 250-307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천주성삼병원 관절센터, 재활의학센터 개설
분야: 인공관절, 관절경, 척추관절수술
(전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장,
늘열린성모병원장 안혁수 전문의 초빙)
문의: (010)9356-0877

본당 선교 도와드립니다.
입교일 앞두고 선교 잘하는 단원 파견
본당 1일 선교학교 개설
대상: 가두, 방문 선교하기 어려운 본당
선교로 본당에 활력을 받고자하는 본당
문의: 대구대교구 가두선교단, 781-6100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2대리구청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미사	8월 8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8월 8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미 사	일 시	장 소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월례미사	8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삼덕젊은이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8월 9일(화) 오후 2시	성모당
8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8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8월 11일(목) 오후 2시	성모당

노블코리아
결혼정보회사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성혼을 전재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수료증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인동 홈플러스 맞은편 한상철 학원 5층
대표 박영주 젬마
문의 : 053) 639-8998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www.appleuro.com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전문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개원 10주년
척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 · 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운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 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허리아프고~ 다리아플때
척추 관절을 치료하는 ~
참조은병원
척추 관절을 위한 13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에 多 모였습니다.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T.630-8000 송현역2번 출구

삼수장여
사람이 종다 삼수가 종다
대표 장 영 진 미카엘
수성점 745-7800 두산점 781-3300

편집 및 발행 : 천주교 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 700-44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 주보담당 : 053) 250-3052